(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6호 별책 (2025. 5.), 97-107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5.5.56s.97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룻기·전도서·요나 —

김유기*

1. 룻기 2:20하반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5]	וַתֹּאמֶר לָהּ נָעֳמִי קָרוֹב לָנוּ הָאִישׁ מִגֹּאֲלֵנוּ הוּא׃
『개역개정』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새번역』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공동개정』	그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새한글』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깝단다. **우리 집안을 살려 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지."
ESV	Naomi also said **to her(그에게)**, "The man is a close relative of ours, **one of our redeemers(우리를 위해 되사 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NET	Then Naomi said **to her(그에게)**, "This man is a close relative of ours; he is **our guardian(우리 후견인)**."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ykim@swu.ac.kr.

ZB	Und Noomi sagte **zu ihr(그에게)**: Der Mann ist mit uns verwandt, er ist **einer unserer Löser(우리를 위해 되사 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LB	Und Noomi sprach **zu ihr(그에게)**: Der Mann steht uns nahe; er gehört **zu unsern Lösern(우리를 위해 되사 줄 사람들 가운데)**.
BB	Und sie erklärte **Rut(룻에게)**: »Dieser Mann ist ein naher Verwandter von uns. Er ist **unser Löser, unser Beistand in Not(우리를 위해 되사 줄 사람, 곧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대명사

לָהּ(라흐)의 번역

‘그에게’(『개역개정』, 『새번역』), 번역하지 않음(『공동개정』), ‘룻에게’(『새한글』)

(2) 번역어

מִגְּאֲלֵנוּ(밋고알레누)의 번역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개역개정』),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새번역』),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공동개정』), ‘우리 집안을 살려 낼 사람 가운데 한 분’(『새한글』)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לָהּ(라흐)는 전치사에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한국어에서 ‘그’는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등의 언어와 달리 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룻’을 가리킨다는 점을 문맥에서 알아낼 수 있지만, 『새한글』은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룻’이라고 밝혀 줌으로써 독자들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고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일어 성경 BB는 고유명사 נָעֳמִי(노오미)를 대명사 ‘sie’로 옮기고 전치사와 대명사 결합형인 לָהּ(라흐)를 고유명사 ‘Rut’으로 옮겼습니다.

(2) 여기서 גֹּאֵל(고엘)은 레위기 25:25의 율법 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파는 경

우 그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그 사람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친척의 땅을 사서 되돌려 주는 사람을 גֹּאֵל(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 2:20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땅을 사서 되돌려 줄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그 둘 사이에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킬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한글』은 룻기에 나오는 גֹּאֵל(고엘)을 '집안을 살려 낼 사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1.4. 『새한글』 룻기 2:20하반의 가르침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오미와 룻은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 집안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집안을 살려 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개인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서 되돌려 줌으로써 사람을 살려 내는 גֹּאֵל(고엘)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2. 룻기 3:11하반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5]	כִּי יוֹדֵעַ כָּל־שַׁעַר עַמִּי כִּי **אֵשֶׁת חַיִל** אָתְּ׃
『개역개정』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새번역』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공동개정』	네가 **굳센 여자**라는 것은 **이 성 안에 사는 내 겨레**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한글』	그대가 **훌륭한 여자**인 줄은 **우리 베들레헴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지요.
ESV	for **all my fellow townsmen(나의 모든 동료 주민들)** know that you are **a worthy woman(훌륭한 여자)**.
NET	for **everyone in the village(마을 모든 사람)** knows that

	you are **a worthy woman(훌륭한 여자)**.
ZB	denn **in jedem Tor meines Volks(나의 백성의 각 성문에서)** weiss man, dass du **eine tüchtige Frau(유능한 여자)** bist.
LB	denn **das ganze Volk in meiner Stadt(나의 도시의 온 백성)** weiß, dass du **eine tugendsame Frau(덕이 있는 여자)** bist.
BB	**Die ganze Stadt(온 도시)** weiß doch, dass du **eine fähige und zuverlässige Frau(유능하고 믿을 만한 여자)** bist.

2.2.『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개별 표현

① כָּל־שַׁעַר עַמִּי(콜-샤아르 암미)의 번역

‘나의 성읍 백성’(『개역개정』), ‘온 마을 사람들’(『새번역』), ‘이 성 안에 사는 내 겨레’(『공동개정』), ‘우리 베들레헴 백성’(『새한글』)

② אֵשֶׁת חַיִל(에셋 하일)의 번역

‘현숙한 여자’(『개역개정』), ‘정숙한 여인’(『새번역』), ‘굳센 여자’(『공동개정』), ‘훌륭한 여자’(『새한글』)

2.3.『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כָּל־שַׁעַר עַמִּי(콜-샤아르 암미)는 ‘내 백성의 성문 전체’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과 그 주변 지역은 사람들이 모이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새한글』은 ‘성문’이라는 낱말 대신에 구체적이면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나의’ 대신 복수형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 주는 공동체를 ‘우리 베들레헴 백성’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2) אֵשֶׁת חַיִל(에셋 하일)은 잠언 12:4; 31:10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셋 하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잠언 31:11-31이나 룻기에 나타나는 룻에 관한 묘사에서 추론해 볼 때 이 표현을 ‘현숙한 여자’나 ‘정숙한 여인’이나 ‘굳센 여자’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언과 룻기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어떤 여자를 칭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므로『새한글』은 이 표현을 ‘훌륭한

여자'로 옮기고 있습니다.

2.4.『새한글』룻기 3:11하반의 가르침

모압에서 온 외국인 룻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나오미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룻을 '훌륭한 여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 없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였고 보아스 역시 그렇게 룻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는 각자의 삶의 정황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 주는 공동체입니다.

3. 전도서 1:2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5]	הֲבֵל הֲבָלִים אָמַר קֹהֶלֶת הֲבֵל הֲבָלִים הַכֹּל הָבֶל׃
『개역개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번역』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공동개정』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새한글』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헬렛(집회설교자)**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ESV	**Vanity of vanities(헛된 것들의 헛됨)**, says **the Preacher (설교자)**,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NET	"**Futile! Futile(헛되다, 헛되다)**!" laments **the Teacher (선생)**. "Absolutely futile! Everything is futile!"
ZB	**Nichtig und flüchtig(헛되고 덧없다)**, sprach **Kohelet(코헬렛)**, nichtig und flüchtig, alles ist nichtig.
LB	Es ist alles **ganz eitel(완전히 허무하다)**, sprach **der**

	Prediger(설교자), es ist alles ganz eitel.
BB	**Windhauch um Windhauch(잔바람에 잔바람)**, sagte **Kohelet(코헬렛)**, Windhauch um Windhauch: Alles vergeht und verweht.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번역어

קֹהֶלֶת(코헬렛)의 번역

‘전도자’(『개역개정』, 『새번역』), ‘설교자’(『공동개정』), ‘코헬렛(집회설교자)’(『새한글』)

(2) 개별 표현

הֲבֵל הֲבָלִים(하벨 하발림)의 번역

‘헛되고 헛되며’(『개역개정』), ‘헛되고 헛되다’(『새번역』, 『공동개정』),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새한글』)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קֹהֶלֶת(코헬렛)은 ‘모으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קָהַל(카할)의 능동분사 형태입니다. 칠십인역은 이 낱말을 ἐκκλησιαστής(에클레시아스테스)로 옮김으로써 ‘집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은 이 낱말을 ‘코헬렛’으로 음역하고 괄호 안에 ‘집회설교자’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아울러 “어원으로 볼 때 ‘집회’와 관련된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이라고 각주에 밝혀 두었습니다.

(2) הֲבֵל הֲבָלִים(하벨 하발림)은 הֶבֶל(헤벨)의 단수 연계형에 같은 낱말의 복수 절대형이 이어진 표현입니다. הֶבֶל(헤벨)은 ‘숨결’이나 ‘증기’를 뜻하는 낱말인데 전도서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 문맥에 따라 ‘헛됨’, ‘덧없음’, ‘비어 있음’, ‘부조리함’ 등을 뜻합니다. 『새한글』은 이런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낱말로 오늘날 한국어 화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인 ‘허무하다’라는 동사를 번역어로 활용했습니다. הֶבֶל(헤벨)의 복수형이 같은 낱말의 단수형을 꾸며 주는 구조로 이루어진 이 표현은 가장 정도가 깊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קֹדֶשׁ הַקָּדָשִׁים(코데쉬 학코다심, ‘거룩함들의 거룩함’)(출 26:34)은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가리키며 שִׁיר הַשִּׁירִים(시르 핫시림, ‘노래들의 노래’)(아 1:1)은 가장 뛰어난 노래를 뜻합니다. 이처럼 ‘허무들의 허무’를 뜻하는 הֲבֵל הֲבָלִים(하벨 하발림)은 극도로 심각한 허무함을 뜻하므

로『새한글』에서는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로 옮겼습니다.

3.4.『새한글』 전도서 1:2의 가르침

전도서에서 설교자는 공동체를 향해 삶의 허무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면서 삶에 관한 보편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설교자는 집회 참여자들이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교훈을 전해 줍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과 고민에 공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4. 전도서 7:7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5]	כִּי **הָעֹשֶׁק** יְהוֹלֵל חָכָם וְיְאַבֵּד אֶת־**לֵב** מַתָּנָה׃
『개역개정』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새번역』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공동개정』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새한글』	**억누름**은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로 만들고, 뇌물은 **분별력**을 잃게 하지요.
ESV	Surely **oppression(억누름)** drives the wise into madness, and a bribe corrupts **the heart(마음)**.
NET	Surely **oppression(억누름)** can turn a wise person into a fool; likewise, a bribe corrupts **the heart(마음)**.
ZB	Denn **Unterdrückung(억누름)** macht einen Weisen töricht, und Geschenke verderben **den Verstand(분별력)**.
LB	**Unrechter Gewinn(부당한 이익)** macht den Weisen zum Toren, und Bestechung verdirbt **das Herz(마음)**.
BB	»**Erpressung(강탈)** bringt den Klugen um den Verstand, und Bestechung verdirbt **sein Herz(그의 마음)**.«

4.2.『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번역어
① הָעֹשֶׁק(하오셱)의 번역
‘탐욕’(『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억누름’(『새한글』)
② לֵב(레브)의 번역
‘사람의 명철’(『개역개정』),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새번역』), 동사와 묶어서 ‘망신을 당한다’로 옮김(『공동개정』), ‘분별력’(『새한글』)

4.3.『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עֹשֶׁק(오셱)은 일반적으로 ‘억누름’을 뜻합니다. 기존의 한국어 번역본들은 같은 절에 나오는 ‘뇌물’을 뜻하는 מַתָּנָה(맛타나)의 영향을 받아 ‘탐욕’으로 옮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עֹשֶׁק(오셱)을 ‘억누름’으로 옮김으로써 원문의 뜻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억누름’과 ‘뇌물’은 모두 지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억누름은 말을 못 하게 하거나 재물을 빼앗음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주도권을 잃게 만듭니다. 뇌물은 부당한 일을 해 주는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2) 히브리어 원문의 לֵב(레브)는 ‘마음’을 가리키는 낱말인데 지혜와 관련된 뜻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לֵב(레브)는 뇌물이 망가뜨리는 대상으로서 같은 절의 ‘지혜로운 사람’과 대응됩니다. 『새한글』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이 낱말을 ‘분별력’으로 옮겼습니다.

4.4.『새한글』 전도서 7:7의 가르침

전도서는 지혜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유용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강압적인 통제로 무너져 내리고 분별력은 부당한 이익 앞에 무력하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튼튼한 사회는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앞세우는 사회입니다.

5. 요나 1:9하반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5]	וְאֶת־יְהוָה אֱלֹהֵי הַשָּׁמַיִם אֲנִי יָרֵא אֲשֶׁר־עָשָׂה אֶת־הַיָּם וְאֶת־הַיַּבָּשָׁה׃
『개역개정』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새번역』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오."
『공동개정』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새한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오**. 그 하나님이 바다와 **마른땅**을 만드셨소."
ESV	and I **fear(두려워합니다)** **the LORD, the God of heaven (주님, 하늘의 하나님)**, who made the sea and **the dry land(마른 땅)**."
NET	and I **worship(숭배합니다)** **the LORD, the God of heaven (주님, 하늘의 하나님)**, who made the sea and **the dry land(마른 땅)**."
ZB	und ich **fürchte(두려워합니다)** **den HERRN, den Gott des Himmels(주님, 하늘의 하나님)**, der das Meer und **das Trockene(메마른 곳)** gemacht hat.
LB	und **fürchte(두려워합니다)** **den HERRN, den Gott des Himmels(주님, 하늘의 하나님)**, der das Meer und das **Trockene(메마른 곳)** gemacht hat.
BB	Ich **verehre(숭배합니다)** **den HERRN, den Gott des Himmels(주님, 하늘의 하나님)**. Er hat das Meer und **das Festland(육지)** geschaffen.«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יְהוָה אֱלֹהֵי הַשָּׁמַיִם(야훼 엘로헤 핫샤마임)의 번역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개역개정』),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새번역』), '하늘을 내시고, … 하느님 야훼'(『공동개정』),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새한글』)

(2) 번역어

① יָרֵא(야레)의 번역

‘경외하는’(『개역개정』), ‘섬기는’(『새번역』), ‘공경하는’(『공동개정』), ‘두려워한다오’(『새한글』)

② הַיַּבָּשָׁה(하얍바샤)의 번역

‘육지’(『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마른땅’(『새한글』)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힌 다음(1:9상반) 자신의 신을 소개합니다. 원문에서 이 표현은 고유명사인 יְהוָה(야훼)에 명사구 ‘하늘의 하나님’이 동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일으키신 신의 이름 יְהוָה(야훼)를 먼저 밝히고 그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은 이 표현을 번역하면서 원문의 어순을 살려서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으로 옮겼습니다.

(2) יָרֵא(야레)는 ‘두려움’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데, 그 대상은 위험한 상황을 비롯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큰 폭풍이 일었을 때 선원들이 처음 느낀 두려움도 이 동사로 표현되었고(1:5), 요나가 1:9에서 한 말을 듣고 뱃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도 같은 어근의 동사로 나옵니다(1:10). 『새한글』은 9절의 동사를 ‘두려워한다오’로 옮기고 같은 어근을 사용한 다른 표현들도 ‘두려움에 떨면서’(1:5)와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여’(1:10)로 번역함으로써 원어의 문학적인 장치를 번역에 반영했습니다.

(3) 이 구절에서 הַיַּבָּשָׁה(얍바샤)는 ‘마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바다’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가리키는 낱말은 אֶרֶץ(에레츠)입니다. 창세기 1:10에서는 물이 모이고 드러난 הַיַּבָּשָׁה(얍바샤)를 אֶרֶץ(에레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새한글』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이 낱말을 ‘마른땅’이라는 용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토질이 건조한 땅’이지만 『새한글』은 바다와 대비되는, 물기가 없는 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5.4. 『새한글』 요나 1:9하반의 가르침

(1)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르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뱃사람들의 질문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밝

힌 다음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바다와 마른땅'을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 뱃사람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제어>(Keywords)
룻기 2:20, 룻기 3:11, 전도서 1:2, 전도서 7:7, 요나 1:9.
Ruth 2:20, Ruth 3:11, Ecclesiastes 1:2, Ecclesiastes 7:7, Jonah 1:9.

(투고 일자: 2025년 2월 19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26일)